

서평

## 춤 예술의 다면성과 학문적 담론의 명쾌한 개론서

이 경 희\*

이 책의 저자 이지원은 무용미학 영역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무용학자이다. 그녀의 학술적 평가는 저서나 논문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사후우수논문 또는 인문 저술 연구 등을 통해 지원금을 수혜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그동안의 저서나 논문을 통해 그녀가 해석하는 춤의 담론은 무용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저서는 ‘춤’을 단순히 고리타분한 학문적 물음이 아니라 ‘춤’을 새롭고 흥미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현재의 물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춤의 미학적인 이론은 항상 존재해 있었지만, 미학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흥미로우면서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동시에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문제들을 야기 시킬만한 퍼즐 같은 사례들을 풍부한 문헌들을 활용하여 잘 다듬어진 글로 명쾌한 해답을 준 사례들은 드물었다. 저자의 ‘춤’을 다원적 관점에서 아우르는 깊은 학문적 통찰력은 그동안 꾸준히 한 길만을 걸어온 연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춤, 테마로 읽다」는 서문에서 “이 책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 예술을 주목하고, 춤의 가치와 움직임을 언어로 실체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역사 속 무용의 흔적과 위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포스트모던 이후 명명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한 컨템포러리 무용의 단층적 모습을 키워드로 접근하여 춤의 현상과 개념을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처럼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자자는 밝힌다.

이 책은 총 제 4장으로, 각 장마다 ‘춤’과 관련된 키워드, 즉 ‘사유’, ‘일상’, ‘과학’, ‘사회’로 나누고, 각 장마다 키워드에 대한 연관 테마들을 나열하여 각 단어에 해당되는 미학적 담론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흔히 사용하는 익숙한 방식으로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춤’과 관련된 통합적인 사유와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자의 미학의 제반문제들을 개별사례를 통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렇게 깊이 통찰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서양 철학의 사상들을 춤과 연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각 장에 소개되는 철학자의 시각들은 무용작품과 연계되어 적절하게 인용문을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춤’과 관련된 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춤’의 패러다임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공인 동작 분석가, cmalee2002@hanmail.net

1장에서는 ‘춤, 사유로 읽다’의 키워드로 춤 읽기, 미학, 실존, 오브제 트루베, 무의식,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형식미학, 주정주의, 미, 표현, 예술, 고전주의, 개념무용, 모방, 추, 자연, 엔투시아스모스, 총체성이라는 테마들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춤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미학적 담론을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 철학적 가치들을 다양한 철학자들의 인용을 바탕으로 독자가 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첫 머리말에 저자는 춤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두 가지, 즉 작품의 ‘인’을 바라보는 내재적 관점과 작품의 ‘밖’을 바라보는 외재적 관점에 대해 명쾌한 설명과 구체적 작품을 예를 들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고 있다. 또한 저자는 발레에서 현대무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관점에서 사조의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관적이고 실존적 진리를 추구하였던 이사도라 던컨, 20세기 초엽에 인상주의 미술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색채의 유희에 관심을 보인 로이 풀러, 회화의 상징주의처럼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표출을 강조하는 마리 뷁그만과 마사 그라함, 실존하는 인간의 문제를 다룬 신표현주의 피나 바우쉬, 춤의 본질을 움직임의 순수성으로 보고 춤에 대한 가치 분별이나 위계화를 지양한 머스 커닝햄과 50년대 잭슨 폴록의 드리핑 행위 등에 대한 철학적 동일성 등을 구체적인 작품 해석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심리이론과 연관성을 가진 마사 그라함, 피나 바우쉬, 매튜 본, 마츠 에크, 그리고 조지 발라쉬 작품 해석을 통해 인간의 심리가 움직임으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형식미학, 주정주의, 미, 표현, 예술, 고전주의, 개념무용, 모방, 추, 자연, 엔투시아스모스, 총체성은 철학적인 시각과 미학적 담론을 작품, 회화, 그리고 철학자들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춤에 대한 미학적 담론을 담고 있다.

제 2장 ‘춤, 일상으로 보다’에서는 눈, 색, 패션, 가면, 욕망, 음악, 유희, 문학, 회화, 재즈, 몸, 스캔들, 집시, 타나토스, 알레아토릭, 아카데미라는 테마로 춤과 안무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춤을 일상이라는 상황에서 해석하고 인문학적 교차 지점을 넘나들며 역사 속 춤의 세계에 새롭게 다가가고자 한다.” 라고 언급한다. 저자는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춤이 예술무용의 형태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모더니즘을 거쳐 20세기 중반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컨템포러리 시대의 춤은 “일상이라고 분류 할 때 도 일상의 소재인지, 움직임인지, 소품인지, 이야기인지 등을 구별하여 그것을 구획화하는 시각에 따라 같은 작품일지라도 ‘일상적이다 혹은 일탈적이다’라고 다르게 평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눈’이라는 테마로 ‘눈으로 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16세기 발레’, ‘시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18세기 빛의 세기’,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19세기 발레’, ‘화려한 기술적 장치로 예술과 과학의 협업을 과시하는 듯한 20세기 중엽의 춤’, 그리고 ‘눈에 호소하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저자는 현대 춤은 색채로 움직임을 해체한다고 보았고, 의상(fashion)은 움직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가면은 인간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개인의 내적태도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로 사용되어왔음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유희’라는 테마를 통해 인간이 단순한 놀이에서 예술적으로 유희적 요소가 작품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였고, ‘몸’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몸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몸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달랐으며, 몸으로 귀결되는 춤 예술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근원이 된다고 언급한다. ‘회화’라는 테마에서는 춤추는 무용수를 그렸

던 드가, 박스트, 에이브로햄 발코비치, 그리고 마티스를 통해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대 춤의 하나의 특징으로 타나토스적 충동이 아포칼립스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창작의 우연성을 의미하는 알레아토릭은 ‘사고의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동시에 다다이즘과 머스 커닝햄, 그리고 존 케이지에 대한 안무철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아카데미’라는 테마로 무용교육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형성되었고, 아카데미에 관계된 인물과 현재의 무용 교육현장에 일어나는 상황까지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제 3장 ‘춤, 과학과 만나다’에서는 댄스필름, 버추얼 퍼포먼스, 소통, 패러디, 광고, 여성 춤 광고 이미지, 남성 춤 광고이미지, 컨버전스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춤의 역사를 ‘과학’이라는 시각을 통해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미지 미학을 제시하고 현상학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학인해 볼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예술과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르네상스 이후 원근법과 해부학의 발달로 예술에도 혁명을 가지고 왔다고 언급하며, 과학의 발달로 발레는 해부학, 원근법, 무대 설치 등을 적용할 수 있었고, 환상적인 무대 연출위해 사용된 낭만주의 발레, 퀴리 부인이 발명한 방사능을 활용한 로이 풀러,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피나 바우쉬, 컴퓨터를 사용했던 머스 커닝햄 등을 예를 들어 오랜 전부터 예술과 과학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오늘날 21세기 과학은 ‘댄스 필름’, ‘인터랙티브’, ‘버추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을 넘나들면서 신체 예술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또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서 춤 예술을 ‘소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의 예로 오늘날 ‘패러디’라는 테마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광고 속의 춤 역시 대중적인 춤에서 예술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춤에 대한 선호와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저자는 “컨템포러리 시대에서 컨버전스의 예술적 경향은 관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서술한다.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강화하되 철학적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통합의 시대’로 보고,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문화 예술 전반 뿐 아니라 예술가에게도 적용 되어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태어난 예술, 과학, 문화는 코스모폴리탄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라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저자는 21세기, 춤 예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술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미래를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면서도 담론 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제 4장 ‘춤, 사회와 공존하다’에서는 주술, 정치, 법, 외설, 혁명, 페미니즘, 여성, 마녀, 게이, 남성, 이교도, 공동체, 타자, 얼터리티, 키치, 퀴어, 유물론, 낯설게 하기를 테마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춤이라는 예술이 단순히 개인의 영감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다.

저자는 결국 춤 예술은 언제나 그 사회와 공조해왔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춤은 당시 사회적 산물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춤을 통해서 우리는 춤과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인간의 ‘주술’을 통해 신과 자연의 교감을 얻으려고 하였고, 주술사는 그것의 매개자 역할을 해왔다.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몸과 움직임 그리고 정신의 치유를 담당하는 역할로 춤에 언급하였다. 저자는 또한 ‘정치’와 ‘법’의 테마를 통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르네상스시대부터 오늘날 컨템포러리 이르기까지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테마는 예술의 주요 영감이자 시대에 대한 보고서로서 작품과 함께 하며 당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 예술은 자유와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언급한다. ‘외설’ ‘혁명’ ‘페미니즘’ ‘여성’ ‘마녀’ ‘케이’ 테마는 작품을 통해 젠더의 고유성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회적 현상의 흐름과 함께 공존해왔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교도’ 테마에서는 춤에서의 이교적인 의미와 움직임을 특징들을, ‘공동체’에서는 엘빈 에일리의 작품과 자월레 율라 조 줄라의 작품을 통해 흑인 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춤이 사회의 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을 때, ‘타자’ ‘얼터리티’ ‘키치’ ‘퀴어’ ‘유물론’ ‘낯설게 하기’ 테마들은 현대 춤에서 주요 이슈로써 사회관계, 권력과의 투쟁, 소수자의 항변, 성의 정체성, 춤의 유물론적 관점, 그리고 ‘낯설음’을 통해 ‘익숙함’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작품경향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춤에 대한 시각을 단순히 추상적 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춤과 함께해온 주변의 사회적 현상들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실질적인 작품해석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의 ‘테마’를 통한 키워드를 통해 춤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삽화, 사진, 시각적 자료들을 동원하여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현실감 있게 구성해나갔다.

이 책은 ‘춤’의 예술과 미학의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전공분야 연구자들에게 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춤’을 이해하는 개괄서로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